

근본경험

‘깨어있기’와 오인회晤因會(깨어있기 참가자들의 후속 모임. 다양한 연습과 대화들이 이어진다) 공부를 통해 개념과 경험의 세계로부터 자유로워지고 있는 이들을 인터뷰했습니다.



모든 ‘현상’ 은 그것의 ‘배경’ 을 동반한다(2)

| 한지 |

한지 님은 IT계통에서 일하는 엔지니어로서 평소 의식현상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져오셨습니다. 깨어있기 프로그램을 접하신 후에 일어난 변화에 대해 들어보았습니다(편집자 주).

(지난 호에 이어서 2부)

편 : 한지 님이 예전부터 품었던 의문, 그러니까 ‘나는 무엇인가?’ 이 질문을 들고 해결하려 했으면 아직도 해결하지 못했을 텐데 오히려 다른 각도, 즉 감지로 접근해보니 쉽게 해결되었다는 것이네요?

한 : 해결됐다고보다는 그것에 더 이상 에너지를 안 주게 되었죠. 쓸 필요가 없으니까.

편 : 그러면 해결된 게 아니네요, 어떻게 보면.

한 : 네, 해결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스무 살 때의 그런 고민들이 완전히 해결된 건 아닌데 월인 선생님이 만드신 감지와 깨어있기, 그것만 하더라도 저에게는 개인적으로 상당히 성공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지 자체만 파고들어도 삶 자체가 엄청나게 바뀌죠.

편 : 어떻게 바뀌셨나요? 그런 체험 이후에.

현 : 에너지 패턴이 많이 바뀌어요. 업무회의 때 내가 주장하는 것들, nada워지려고 하는 패턴들이 다양하게 나타나는데, 회사에서의 업무태도, 일상생활에서의 태도, nada워지려고 하는 태도들이 많이 사라져요. 기존에 문제가 되었던 것들이 거의 문제가 되지 않죠. 그렇게 되어도 상관없고 안 되도 상관없으니까.

편 : 회사 일이나 일상생활에서 있었던 것들 중에 nada워지려고 했다가 그 태도가 사라진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 설명해주세요.

현 : 이를테면 남성이 갖고 있는 여성에 대한 시각 같은 것들이 사라져요. 정말 여성을 여성대로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남자들에게는 보통 성적인 환상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내려놓아져요. 왜냐면 남자가 남자다우려면 여성에 반대되는 정의들이 내적감지로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남자다, 40대 중년남성이다”라는 그런 기존의 감지들이 자연스럽게 내려질 수 있어요. 그래서 여성을 여성으로 볼 수 있고 심지어 여성을 여성으로 보는 그 자체에 대해서도 ‘너는 진짜로 여성을 여성으로 보고 있냐?’ 라고 질문할 수 있죠. 대상을 남성, 여성으로 분리하여 이미 믿고 있는 그 믿음조차도 내려놓고 볼 수 있는 거죠.

다른 예를 들면, 저는 개인적으로 짜증을 잘 내거든요. 나만의 공간을 중요시 하고, 또 공공장소에서의 상식적인 측면, 아무데나 침을 뱉거나 인도에 오토바이가 다닌다거나 하는 비상식적이고 매너, 교양이 없는 사람들에 대해서 평소에 너무 짜증을 잘 냈어요. 그런데 요즘은 그것에 대해서 짜증이 나도 상관없이 없게 되었어요. 물론 짜증이 나는



제 모습이 보이고, 그래서 짜증을 낼 수도 있고 안 낼 수도 있어요. 길을 걷는데 앞 사람이 흡연하면 뒤에 따라가는 사람이 상당히 힘들지요? 담배 냄새를 강제로 맡게 되니까. 예전에는 여기에 대해 무조건 짜증을 냈는데, 요즘은 짜증나는 과정이 보이니까 가벼워졌어요. 짜증 내고 싶으면 낼 수 있지만 그런 것에 에너지가 많이 안 가다보니까 자연스럽게 짜증이 보이고 곧 사라지게 되는 거죠. 에너지를 진짜 안 쓰게 돼요. 구체적으로 설명 드리면 그런 것들이 있는 거죠.

편 : 부정적인 감정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다는 말씀이네요.

힌 : 네. 부정적인 감정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그 감정을 만들 수도 있고 안 만들 수도 있고 선택이 가능하게 되는 거죠. 그것을 꼭 없애야 하는 것이 아니라.

편 : 요즘엔 실내금연 법규까지 제정된 걸 보면, 그런 불편함이나 부정적인 감정이 있어야 개선하려는 움직임이 일어나고, 그런 법규를 만들게 되는 것 아니겠어요?

힌 : 그렇죠. 부정적인 감정이 꼭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런 것들이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된다고 말씀드린 것은, 그것들이 사실 그저 마음 안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이기 때문이거든요. 짜증나거나 불쾌하다고 해서 그것이 꼭 나쁘거나 부정적인 것은 아니에요. 그 불쾌감을 사용할 수도 있고 없앨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주로 그 불쾌감 때문에 불편함을 많이 느끼고 그것에 동일시가 많이 되어 왔던 거죠. 그런데 그 모든 과정을 보는 순간 그것에서 빠져나오며 불쾌감을 쓸 수도 있고 안 쓸 수도 있게 돼요. 점점 더 좋게 양성적인 방향으로 사회를 이끌어가고 싶으면 불쾌감을 사용하면 되거든요, 언제든지.

편 : 그러니까 그 불쾌감에 빠지지 않고, 그것이 전부가 되지 않기에 마음에 여유 공간이 생겨, 그것을 잘 쓸 수 있는 토대가 된다 이 말이지요? 아까 나다워지려고 하는 패턴이나 태도가 사라졌다고 했는데 회사에서 부딪힘은 어떻게 되었나요?

힌 : 회사에서 부딪힘은 거의 사라졌죠. 특정 일, 특정 업무를 어떻게 다른 팀과 같이 풀어갈 것인가에 초점을 맞추죠. 예전에는 다른 팀과 회의하면서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했을 때 일단은 저 팀은 어떻게 누구는 이렇구나 하는 선입견을 가지고 시작했는데, 이제는 그런 것들이 많이 사라지고 그 업무를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가 하는 부분에 집중이 돼요. 기존에 갖고 있었던 걱정들 혹은 선입견들 그리고 내가 예전에 저 업무를 해봤는데 어떻더라 라는 부담감 같은 것들이 일종의 감지로서 동시에 느껴져요. 느껴지기 때문에 거기에 묶이지 않죠. 오히려 그 업무를 어떻게 하는 것이 효율적인가 하는 데에 에너지가 쓰이게 되었지요.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전반적인 것을 다 따졌지요. 내가 할 때 저 업무 어땠고 저 사람 좀 그렇고, 이 부분은 내가 잘 모르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 그렇게 걱정과 따지는 마음이 많았어요. 그런데 이제는 거기에 묶이지 않아요. 해당업무를 이렇게 하는 게 가장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면 바로 그런 식의 태도를 나도 모르게 보이더라고요.

편 : 과거의 기억이나 감지에 좌우되지 않는다, 또 그것이 완전히 없어진 건 아니지만 있어도 상관없게 되어, 그것에 끌려 다니지 않고 일을 해결하는 쪽으로 에너지가 쓰인다는 말씀이죠?

힌 : 어제도 동료와 다했어요. 다투는 와중에 분노가 일어나는 것도 동시에 보이고 토론을 격하게 하는 와중에도 이 토론을 가장 쉽게 해



결하려면 이 얘기를 해야겠구나 하는 마음이 함께 일어나지요. 예전 같았으면 내가 이 얘기를 잘못하면 해결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심한 감정싸움이 있을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 멈추곤 했는데 이제는 그런 분노가 동시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전에는 하지 못했을 말을 저도 모르게 하더라고요. 그리고 사실은 그렇게 말한 것이 가장 좋은 해결책이었던 것이죠. 저도 모르게 종종 쉽게 해결되는 것 같아요.

편 : 깨어있거나 오인회를 통해 쪽 공부해오면서 이전까지 붙잡고 있던 문제나 걸려 있던 것이 해결되었나요?

힌 : 깨어있기 이전에도, 이후에도 계속 개인적으로 가장 큰 문제로 여긴 것은, 과연 나는 누구인가? 라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런 마음도 하나의 '현상'으로 나타난다는 것을 발견해요. 그리고 그게 좀 재밌어요. 현상으로 느껴지긴 하는데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그걸 자꾸 규명하려고 하는 이전 버릇은 아직 좀 있는 것 같아요.

편 : 나는 누구인가라고 묻는 것 자체가 하나의 현상임이 파악되었는데 관성이 남아있어서 올라온다는 건가요?

힌 : 굳이 그걸 심각하게 고민할 필요는 없는데 결국 그것도 그냥 함께 있는 거예요. 함께 있는 건데 아직까지도 그것에만큼은 주의가 쏠리고 있는 것이죠. 이게 불교에서 말하는 습인지 아무튼. 그런데 <깨어있기> 참가 전에는 그게 전부였어요. 마음이 거기에 몰입되어 빠져있었지요. 반면 지금은 힘이 많이 빠졌어요. 완전히 빠진 건 아니지만 거의 80~90%는 빠졌어요.

편 : 여러 가지 질문이 많을 텐데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에 포

커스가 맞춰진 것은 왜 그럴까? 라마나 마하리시의 책 제목도 그렇잖아요?

힌 : 마하리시의 책도 읽어봤고 그 책도 저에게 영향을 미치긴 했죠. 그런데 <깨어있기>와 감지를 연결하는 것은, 크리슈나무르티의 『자기로부터의 혁명』이라는 책이었어요. 그 부분에 많은 연결고리가 있는 것 같아요. 라마나 마하리시는 직관적인 질문이 많았죠. 과정을 보기보다는 순수하게 자신의 모든 에너지를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에 올인하고 그것을 통해서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게 하는 것이 강했죠. 그런데 일상생활을 하면서 거기에만 올인할 수는 없거든요. <깨어있기>에서 연습하는 감지感知 쪽이 일상생활에서는 참 괜찮은 수단인 것 같아요.

편 : 감지가 깨어있기에서 다루는 핵심이라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힌 : 계단을 올라가는 첫 발자국이 감지인 셈이죠.

편 : 요즘에는 감정이 일어나지만 거기에 휩쓸리지 않고 함께 있을 수 있나요?

힌 : 체중이 100kg 이상 나가다가 70, 60kg으로 감량한 느낌, 감정적이든 심리적이든 상태를 설명하자면 그런 것 같아요. 예전에 문제되었던 것들이 사실 문제가 안 되니까요.

편 : 그러면 감정이 발생하는 구조와도 관련될 텐데 결국은 감정도 생각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길거리에서 침을 뱉는 것을 예로 들어서 감정이 발생하는 구조를 설명해주신다면?

힌 : 시각적으로 보면 침을 뱉는 행위는 그 자체로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단지 입에서 침이 떨어져 나온 것뿐인데 우리는 거기에 이미 사회적인, 도덕적인 잣대를 들이대요. 침을 뱉는 것을 목격하는 순간 올라오는 도덕적인 잣대가 감지였던 거죠. 그 감지를 통해서 불쾌감이 일어나고 아주 불편한 마음이 생겨나죠. 이 과정이 순간적으로 일어나니까 침 뱉는 것을 보는 순간 나도 모르게 즉각적으로 불쾌감에 빠져 버려요.

그 행위 자체를 있는 그대로 보면 단지 입에서 침이 떨어지는 것일 뿐이에요. 공공장소에서는 침을 뱉으면 안 된다는 생각에 붙은 내적인 감지, 기존에 사회적으로 갖고 있는 내부적인 기준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사건을 만들어 내고 드라마를 만들어 내요. 거기서 바로 불쾌한 감정, 기분 나쁜 감정이 나타나는 거죠.

편 : 그러면 결국 있는 그대로를 본다는 것은 ‘입에서 액체가 나온다.’는 것뿐이네요.

힌 : 그리고 저 사람이 정말 목에 무언가 걸려서 불가피하게 어쩔 수 없이 그럴 수도 있거든요.

편 : 그런데 왜 불쾌감이 생길까요?

힌 : 나의 마음은 이미 한쪽에 만들어져 있어요. 공공장소에서는 상식을 지켜서 침을 뱉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 만들어져 있지요. 거기에 누군가 침을 뱉는 것을 보면 이것이 깨져가는 거예요. 에너지가 깨지다 보니 그것이 불쾌감으로 바로 올라오는 거죠. 마음의 모양이란 것은 언제든 허물고 다시 만들 수 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고정화시켜 내 것으로 아주 소중한 다뤘죠. 그리고는 외부적인 자극을 그것을 공격하는 것으로 여기는 거예요.

편 : 도덕적 잣대, '침을 뱉으면 안 된다' 는 생각 규범이 나와 동일시된 거네요. 외부적인 침을 뱉는 상황과 부딪혀서 내가 부서지는?

힌 : '침을 뱉는다' 는 것도 감지화된 하나의 패턴이에요. 있는 그대로 보면 입에서 액체가 나오는 건데 침을 뱉는다고 '정의' 를 내리거든요. 그것이 결국은 길거리에 나가서 내가 내 드라마를 보는 것과 같아요. 그것을 있는 그대로 보게 되면 배경이 보이는 순간 그것이 나의 정의라는 것이 같이 들어오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보면 아무것도 아닌 상황이라는 것이죠. 하이데거가 그런 의미로 얘기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세상에 던져진 순간 이미 감지를 통해서 세상을 정의내리고 내가 만든 세상에서 내가 화를 내고 불쾌감을 드러내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상당히 모순적인 것이지요.

편 : 그 모든 게 나한테서 일어나는 거다, 그런 건가요?

힌 : 그렇죠. 감지感知를 명확히 보게 되면 모두 내 안에서 일어나는 현상이라는 것이 명확해지죠. 그걸 더 심화해서 '아는 나', 그리고 '어떻게 해서 나타나는 나' 라는 것도 '하나의 현상' 이라는 것이 좀 더 심도 있는 곳에서 발견되죠.

편 : 간단히 얘기하면 여기에 모든 게 다 설명될 수 있겠네요?

힌 : 네, 다 설명될 수 있죠. 예를 들어서 얘기하니까 쉽게 풀어나가네요.

편 : 결국 불쾌한 감정이 일어난다는 것은 도덕적 잣대 규범과 동일시된 내가, 침을 뱉는 상황이나 그런 사람의 행동에 의해서 침범당한다?



순수한 의문들, 즉 '내가 이것을 하면 어떻게 나아질까?' 라기보다는
 '정말 있는 그대로 본다는 것이 뭐지?' 이런 질문 자체에 올인하다 보니
 '내'가 가지고 있는 '내용'들이 많이 내려놓아졌어요.
 질문 자체를 무의식적으로 갖고 있으니까
 아주 작은 사건들을 통해서 새로운 시각 혹은 새로운 영감을 받을 수 있었지요.

힌 : 그렇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도덕적인 잣대든 뭐든 내부적인 자아의 모습을 갖고 있어요. 자아의 모습을 지키려고 하는 게 사실 그 사람의 인생인 거죠. 우리는 감지연습 혹은 깨어있기 연습을 통해서 그게 사실은 수단, 도구임을 명확히 하는 것이고요. 그러면서 우리는 더 훌륭한, 더 상황 좋게,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방법을 발견하는 거예요.

편 : 이런 도덕적 잣대를 갖고 있다하더라도 거기에 에너지인 신념이 강하게 붙어있지 않다면 누가 침을 뱉어도 불쾌하지 않을 수 있는데...

힌 : 맞아요. 에너지가 강하지 않으면 개의치 않겠죠. 깨어있기 과정에서 얘기하는 감지들의 과정이 약간만 보여도 신념들이 많이 사라져요.

편 : 구조를 설명하자면, 도덕적 규범을 믿고 있을 때 그 강도(強度)만큼 기분이 나빠진다는 거네요?

힌 : 쌓여있는 만큼 에너지가 더 많이 깨지겠죠.

편 : 정말 그걸 믿고 있으면 훨씬 더 기분이 나빠질 테고, 침을 뱉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그 사람 본인은 불쾌함이 없을 거 아니에요?

힌 : 그렇죠. 결국은 크리슈나무르티가 말하는 분열이고, 행복을 추구하는 내가 내 이야기를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행복하지 않은 상황을 만들고 있는 거죠. 엄청나게 모순인 거예요.

편 : 침을 빨는 사람 자신에게도 길거리에서 침을 빨으면 안 된다는 도덕적 규범이 있을지도 모르는데 불쾌함이 느껴지지 않는 것은 왜일까요?

힌 : 사실 이것은 '내용'에 접근하는 것인데 예외적으로 자기한테는 허용하는 그런 것일 수 있겠죠.

편 : 다른 사람이 빨는 침이 아니고 내가 빨는 침이니까?

힌 : 우리 집에서 내가 하는 그런 것들 그런데 그건 규명을 어떻게 내리느냐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고..

편 : 자기가 빨는 침은 괜찮고 남이 빨는 침은 불쾌한 거네요? 나와 너라는 분열을 기반으로 불쾌감이 생긴다고 할 수 있겠네요?

힌 : 이것은 과정을 보면서 얘기하고 따져보면 정말 재밌어요. '나'라는 것이 내부적으로 얼마나 모순되어 있는지 그것이 보이기 시작하죠.

편 : 그러면 '믿음의 느낌'이 그런 식으로 정확히 파악됐겠네요?

힌 : 네, '믿음의 느낌'은 갖고 있어요. 그 느낌이 이제는 많이 작용하지 않아요. '믿음의 느낌'이 파악되니까 믿음을 절대 제 믿음이라고 믿지 않게 되죠.



편 : 그런 상相과의 동일시에서 벗어나더라도 미묘하게 남아있는 주체와의 동일시는 어떻게 파악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거기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요?

힌 : 그것이 요즘 저의 주제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도대체 기저에 무엇을 깔고 있기에 이 미묘한 일이 일어나는 걸까?... 이것은 저도 아직 말씀 못 드리겠어요.

편 : “내가 자유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나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이다” 이런 표현이 와 닿았다고 하셨는데...

힌 : 그것은 이제 너무 당연해서 뭐라고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나는 누구인가?’ 혹은 ‘스스로 명확해야 한다’는 그런 질문이 마음에서 힘을 많이 잃었지만 여전히 거기에는 걸리는 것이 있어요.

편 : 한 가지 드는 의문이, ‘모든 것이 마음 속 감지’로 파악이 되었다고 했는데 ‘스스로 명확해야 한다’는 이것은 무엇이죠?

힌 :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과 같은 내용이에요.

편 : 이것은 감지와 어떻게 관련지을 수 있을까요?

힌 : 스스로 명확해야 한다는 얘기는 ‘아직 나는 깨어나지 않았다’ 혹은 ‘깨어나지 못했다’는 묘한 느낌을 다른 식으로 풀어 얘기한 건데...

편 : 내가 아직 깨어나지 못했다? 그럼 그 ‘나’는 뭐가요? 깨어나지 못한 나가 진짜 나인가요?

힌 : 아니죠. 그것도 아니죠. 그것도 현상이긴 한데 거기에서 힘을 완전히 빼지는 못하고 있는 거 같아요.

편 : 왜 못 빼지요?

힌 : 20대부터 갖고 왔던 의문을 풀기 위해 노력해 왔던 것에 대해 뭔가 보상받으려는 심리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상심리일 수도 있고 정말 '나는 아직 자유롭지 못하다'는 어떤 응어리 같은 건데 명확하게 설명 드리기가 어렵네요.

편 : 그럼 '내가 자유로워진다'는 얘기가 되는 건데 '나로부터' 자유로워진다는 말과 모순되는군요.....

힌 : 미묘한 이야기인데, 뭐랄까 '고민하는 나'를 현상으로 완벽하게 바라보지 못하는 거 같아요.

편 : 남은 공부가 그것이라는 건가요?

힌 : 완벽하게, 이론이든 뭐든 버려야 되는 것 같은데, 결국 내가 자유로워지는 게 아니라 나로부터 자유로워진다는 것이, 아까 우리 대화 처음 할 때 마트의 모든 물건들이 다 버려지면 어떻게 될까라는 말과도 같은 것이고, 여전히 버리지 못하는 뭔가 있는 거 같아요.

편 : 마트의 모든 물건이 다 없어져도 장바구니는 남는다는 그런 얘기가요?

힌 : 그렇죠. 그런데 이런 의문 자체를 즐기는 것 같기도 해요. 뭔가 흥미라도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런데 그 기저에 뭐가 남은 것 인지는...



편 : 그것도 하나의 구습이라고 할 수 있지 않나요? 그동안 뭔가에 매달리던...

힌 : 그런데 그걸 규정하고 말로 정하기보다는 느낌으로 접근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듯합니다. 느낌으로 접근하다보면 그것이 저절로 드러나면서 깨질 때가 올 듯하구요. 지금 설명은 이렇게 하지만 그것이 명확히 무엇이다 라고는 말 못하겠고, 아직 그것은 남은 거 같아요.

편 : 최종적으로 묶여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러면 공부하는 분들에게 도움되는 말을 해주시죠.

힌 : 저 같은 경우는 순수한 의문들, 즉 '내가 이것을 하면 어떻게 나아질까?' 라기보다는, '정말 있는 그대로 본다는 것이 뭐지?' 이런 질문 자체에 올인하다 보니 '내'가 가지고 있는 '내용'들이 많이 내려놓아졌어요. 질문 자체를 무의식적으로 갖고 있으니 평소의 행동이나 생활은 늘 동일하지만 아주 작은 사건들을 통해서 새로운 시각 혹은 새로운 영감을 받을 수 있었지요. 내가 여태 생각했던 과정들이 하나 둘씩 깨지더라고요. 그래서 '순수한 의문'들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편 : 순수한 의문을 계속 품고 있으면 그것이 인도한다 그런 말인가요?

힌 : 그렇죠. 내가 내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순수한 의문이 저를 다른 방식으로 인도하는 식이지요.

편 : '나라고 할 만한 것이 없다'는 것이 확인이 되는지요? 어떠신가요?

힌 : 네, 확인되죠.

편 : 그것이 확인된다면 이렇게 ‘대답하고 움직이는 자’는 누구인가요?

힌 : 이런 질문에 대해서 ‘모른다, 모르겠다’가 지금 현재의 느낌이에요.

편 : 이 ‘모른다’는 안다의 반대 의미인가요? 아니면 다른 의미인가요?

힌 : 반대의 느낌이라기보다는 ‘그냥 모름’이에요.

편 : 그 둘을 뛰어넘는 초월한 의미인가요?

힌 : 그 정도까지도 아니겠고 그냥 ‘당신은 누구인가요? 아직 나라고 할 만한 것이 없는데 이렇게 대답하고 있는 나는 누구인가요?’라는 질문에, 예전에는 그것을 알려고 노력하고 계속 뛰지? 하고 찾아갔는데 이제는 알려고 하는 것과 찾으려고 하는 ‘현상’은 안 일어나고, 자연스럽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 ‘모르겠다’라는 거죠.

편 : 관심이 떨어졌다고 해야 할까요?

힌 : 관심이 떨어졌다고 할 수도 있고, 정답을 찾으려고 할 때 그 정답이 ‘모르겠다’인 것 같아요. 굳이 거기에 대해서 맞는 답을 찾을 필요도 없고…….

편 : 왜 없죠?

힌 : 나를 답으로 표현할 수 있을까요?



편 : 질문을 하면 맞는 답을 내거나 틀린 답을 내거나 하는데 관심이 없다거나 모르겠다는 것은 질문을 무시하는 건 아닌가요? 아니면 질문에 대한 정확한 답이라고 말씀하시는 건지?

힌 : 질문을 무시하는 것은 아니고 그냥 ‘모르겠다’ 예요.

편 : 아, 그것이 최선의 답이라고 말씀하시는 거네요? 그럼 나는 없는 건가요? 질문 자체가 우문일 수도 있거든요. 우문이면 저를 질책을 해주시고 현답을 해주시면 되고.

힌 : 이 질문 자체는 사실 제가 갖고 있는 의문이에요. 의문이 해결되었는지는 모르겠어요.

편 : 아까 메타감지도 얘기했었는데, 나라는 것도 일종의 감지 중에 메타감지라고 하면 현상이니까 진실한 나가 아니라는 건데, 나라고 할 만한 것이 없다는 것, 이런 것이 다 내용에 빠지는 것 아닌가요?

힌 : 맞아요. 질문의 내용에 빠지는 거예요.

편 : 대상과 배경에 대해서 쪽 이야기 해주셨고, 마음속에 나타난 모든 감지들이 대상으로 파악이 되며, 더 이상 거기에 빠지지 않고 물러나서 구조를 보게 되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서 배경으로서의 의식을 알아차리게 되었다는 말씀도 하셨죠.

힌 : 감지가 대상으로써 어느 정도 명확해지면, 처음에는 찾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감지 즉 대상에 대해 에너지가 많이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이것들 모두가 다 현상이라는 것이 어느 정도 느껴지면, 하나의 커다란 테두리로서의 배경을 그때부터 느끼기 시작하는 거죠. 감지가 나타나든 감정이 나타나든 그때는 많이 개의치 않게

됩니다.

편 : 그 배경이라는 것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관찰자, 주시자로서…….

힌 : 그것보다 더 큰 무엇이죠. 설명을 할 수는 없어요. 감지와 감지를 느끼는 나는 동시에 나타나요. ‘나’ 라는 물 소용돌이가 나타나려면 결국 물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면 ‘나와 대상’ 이 나타나는 그 지각知覺의 이면, 그것이 어느 순간 느껴지는 거죠.

편 : 그렇게 느껴진다면 또 하나의 이것도 감지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요?

힌 : 그것도 감지라고 할 수 있어요. 결국 감지라는 개념은 대상화할 수 있다는 것인데, 대상화할 수 있다는 것이 결국은 인간의 구조적인 측면인 것 같아요. 그런데 뭔가 대상이 나타나려면 배경을 갖고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처음에는 대상에 집중하다가 나중에는 대상의 의미가 사라지는 순간 배경 쪽으로 에너지가 자연스럽게 옮겨가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죠. 그것을 말로는 설명할 수 있지만 그 배경이 무엇이다 라고는 설명을 못 드리는 거죠. 에너지의 미묘함을 조금씩 나누다 보면 어느 순간 배경에 더 에너지가 가게 돼요. 사실 에너지가 아니라 현상이 현상임이 명확해지면 현상이 발생하는 순간 이미 의식은 배경 쪽에 가 있어요. 배경 쪽에 가 있다 보니까 ‘의식’ 이라는 것이 잠깐 일어났다 사라지는 파도로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편 : 오늘 인터뷰 소감은 어떤가요?

힌 : 그동안 혼자 머리로 고민하던 것들이 많이 구체화되었어요. 그



리고 아까 얘기했던 삶 자체가 엄청난 모순이었다라든가, 우리의 판단 자체가 엄청난 모순이라는 그 얘기가 그동안 머릿속에만 머물러 있었던 것 같은데, 오늘 인터뷰하면서 밖으로 나오게 된 것 같아요. 그게 저한테도 사실 좀 구체화되었고 대화 자체도 재미있었어요.

편 :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공부하면서 현상과 본질, 대상과 배경, 또 이분법적으로 나누어져 있다고 얘기를 하고 월인 님의 강의에서도 컴퓨터 화면이 프로그램을 띄우면…….

힌 : 프로그램은 나타나죠. 하지만 OS는 인식되지 않아요.

편 : 만약 그 배경에 대한 느낌이 있다면 이것 역시 현상이다?

힌 : 그렇죠. 그것마저 현상인 거죠. 그럼 결국 존재의 저 아래로 내려갈 수밖에 없어요. 지각 가능하게 하는 그 무엇. 현상이 가능한 그 무엇.

편 : 현상을 현상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 근원의 자리에 있는 거다? 남은 과제를 간략하게 정리해 주시죠.

힌 : 지금까지 제가 했던 작업은 ‘내가 아닌 것’이 무엇인지 명확히 아는 것, 그것이 주된 것이었어요. 동일시된 순간 모든 공부는 사실 다 의미 없어지거든요. 결국 개인이 마지막까지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아닌 것’ 들을 자꾸 없애는 거거든요. 그에 대한 원동력은 ‘가장 순수한 차원에서의 질문들’인 거구요. 그 두 가지 이외에는 사실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왜냐면 스무 살 때부터 계속 했던 고민들이 이미 ‘나는 있다’라는 전제를 가지고 시작한 고민이었는데, 거기서 아무리 해봤자 발전적인 것들을 판단하는 것도 사실은 ‘나’ 이니까 그것이 근본적으

로는 아무런 발전이 없었죠.


편 : 전제를 깔고 있는 것 자체가 허상이기 때문에 거기서는 올바른 답이 나올 수 없다?

힌 : 순수한 질문을 바탕으로 해서 내가 무엇이 아닌지만 밝혀내면 그 이상 할 게 없는 거 같아요.

편 : 처음에는 ‘내가 무엇인가’ 라는 질문으로 시작했지만 그 이후에는 ‘내가 무엇이 아닌가’ 를 밝히는 쪽을 하다가 소득이 있었다는 거네요. 마지막으로 앞으로의 계획이 있으신지요?

힌 : 최근에 선생님도 말씀하셨지만 결국은 인류에 대한 고민들이 거든요. 개인적인 문제가 사라지면 결국 인류적인 문제, 인간적인 문제들에 포커스를 맞출 수밖에 없어요. 회사일도 물론 하긴 하지만 내년쯤에는, 일을 줄이고 인류에 대한 고차원적인 문제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으려 해요. 우리가 얼마나 모순된 삶을 살고 있는지 다양하고 공개적인 방식으로 드러내면서 서서히 정말 깨어있는 게 무엇인가 그걸 명확히 하고 싶어요. 그러면서 그런 과정에서 역할을 하고 싶고요.

편 : 오랜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힌 : 감사합니다.(끝) 

• 이 글은 미내사의 허락 없이 무단 전재나 재배포를 할 수 없습니다.